



↓	호미양양
<p>디자인 스테이 아키텍츠(대표 홍정희·고정석), stayarchitects.com 참여 디자이너 홍정희, 고정석, 김판수 조경 디자인 보타니컬 스튜디오 삼 @botanical_studio_sam_project 브랜딩 하이드라프트, hydrafft.co.kr 클라이언트 호미양양 발표 시기 2022년 4월 사진 홍기웅</p>	
<p>호미양양은 '취향의 아름다움(好美)이 듬뿍 담긴 양양洋洋'이라는 뜻이다. 취향을 키워드로 한 공간인 만큼 효율성이나 생산성보다 건축주와 게스트가 다양한 접점에서 만나는 경험을 가장 우선시했다. 높은 용적률을 허용하는 지역임에도 과감하게 단층의 3개 동으로 스테이를 구성했으며 무엇보다 바다가 주는 활력과 하조대의 평화로움을 모두 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건축물을 안정적으로 배치하되 반짝이는 골함석과 폴리카보네이트, 유리 블록 같은 산업 소재를 다양하게 조합하고 중첩해 바다의 자유로움과 젊음을 표현했다.</p>	

↑	논스페이스
<p>디자인 온건축사사무소(대표 정웅식), on-u.kr 참여 디자이너 정웅식 클라이언트 유창길 발표 시기 2022년 7월 사진 윤준환</p>	
<p>노후화된 마을에 실험적인 교차 문화 시설을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으로 지역을 재생하고자 했다. 하천을 따라 형성된 논밭은 낚시터로 사용되면서 논밭의 흔적이 사라져버렸다. 이를 건축적으로 복원하고자 논길의 수로처럼 벽을 구축하고 여러 공간을 중첩해 질서를 부여했다. 벽체로 직조한 공간 내부에는 나무, 돌, 수공간, 하늘 등 자연환경을 담았다. 가로와 세로의 질서가 만나는 지점에 형성된 교차 공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올 수 있다.</p>	



→ **소여정**

디자인 스테이 아키텍츠(대표 홍정화·고정석),
stayarchitects.com
참여 디자이너 홍정희, 고정석, 김판수, 김영도
조경 디자인 보타니컬 스튜디오 삼
@botanical_studio_sam_project
브랜딩 하이드라프트, hydraft.co.kr
클라이언트 소여정
발표 시기 2022년 5월
사진 홍기웅

경주 황리단길에 위치한 소여정은 오래된 개량 한옥을 프라이빗 스테이로 리모델링한 프로젝트로 전통보다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시대성을 드러내는 담장과 대문은 유지하되 마감재를 교체했으며 본체의 외벽은 기능성과 사용성을 고려해 과감하게 구조재를 가리고 현대식으로 마감했다. 내부는 한옥의 '칸'에 착안해 평면을 계획했다. 대청을 중심으로 방이 구획된 기존 공간에서 비내력벽을 모두 철거해 개방된 구조로 전체적인 틀을 구성했다. 또 칸을 나누는 구조 부재를 기준으로 거실, 욕실, 다이닝, 침실을 각각 작은 정원과 함께 배치했다.



← **모두의 마을 활력소**

디자인 지요건축사사무소(대표 김세진), jiyoo.co.kr
참여 디자이너 송경은
클라이언트 도봉구청
발표 시기 2021년 12월
사진 남궁선

마을 공동체 시설과 협력해 시민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 공간이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저층부에 배치해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자문, 조정, 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자치구의 경제지원센터를 겸하는 다소 독특한 성격의 공공시설이기에 차분함과 정연함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계획했다. 외벽의 벽체는 반투명한 물성으로 구축했는데 이는 계절, 날씨, 시간에 따라 표정을 달리하며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낸다.